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TF) 송영길 위원장(가운데)과 김한정(왼쪽)·윤건영 의원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 문제 대응 한반도TF, 미국 출국

TF위원장 송영길 등 의원 4명
오늘부터 5일간 워싱턴DC 방문
“하원의원과 북핵 문제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반도 TF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은 오는 16~20일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미 하원 의회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으로 차기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15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일정에 대해 전했다. 송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비건 부장관 면담과 관련 “한반도 문제 등 이후 과정을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셔먼 하원의원과 면담에 대해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방미 일정 중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들과 만날 계획도 밝혔다. 최근 연방 하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소속 앤디 김(재선, 뉴저지), 메릴린 스트리클랜드(워싱턴) 후보,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영 김(캘리포니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송

의원은 이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 의회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상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또 미 하원 의회에 상정된 한미동맹지결의안 통과가 앞둔 상황에서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민주당),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공화당) 등과 만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지결의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 만큼 관련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방미 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와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국 정치인 면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미 일정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잘 수용되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하원 52명 의원이 한반도종전선언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상태라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의원들과 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방미 의회 외교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초당적 방미단을 꾸려 다음 달 14~18일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년 초 미국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해수부, 오늘 국제항로표지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등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6일 온·오프라인으로 ‘국제항로표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항로표지란 등대, 부표, 위성항법 보정시스템과 같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포럼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항로표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등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 미래 해상환경에서 스마트 항로표지의 역할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등대 문화유산 가치 발굴이나 항로표지 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

김기수 동아대 교수, 임민석 뉴마린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슬기 해양PNT연구단 선임기술원이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포럼은 ‘세계항로표지의 날’(매년 7월 1일)을 기념해 지난 7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능형 축사 감지기 국가표준 신규제정

농식품부, 외부센서 등 총 19종
연결선수·색깔·순서 등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 축사(스마트축사)에서 사용하는 외부·내부·안전 감지기 19종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 스마트팜 분야 최초로 온실에서 사용되는 센서와 구동기 22종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축사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ICT 기자재에 대해서도 표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센서 외부 센서 7종, 내부 센서 8종, 안전 센서 4종 등 19종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스마트 축사 감지기 국가표준은 축사 내외부의 환경정보와 안전정보를 측정하는 센서의 연결선수, 색깔, 순서, 끝부분 모양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체가 스마트축사 감지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검정 바우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초기 단계인 국내 스마트팜 정보통신 기술(ICT) 기자재 산업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국산 기자재의 호환성·품질·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i@

산업부, 오늘부터 5일간 ‘중견기업 주간’ 개최

소·부·장 GVC변화 대응전략 모색

(주요 행사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자	행사	장소	주관기관	메시지
11.16(월)	사회공헌 활동 - 기부금 전달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연대와 협력
11.18(수)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롯데호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연대
11.18(수)	중견기업 기업가정신 포럼	롯데호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도전과 혁신
11.19(목)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롯데호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협력
11.20(금)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	코엑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스타트업 협력

‘격려’와 ‘혁신’, ‘협력’을 화두로 16일부터 20일까지 ‘중견기업 주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6일부터 20까지 ‘2020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대한 우리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지난해 ‘중견기업법령’을 개정해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법정화했다. 올해는 ‘격려, 혁신,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8일 ‘제6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엔 정세균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중

견기업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일자리·상생협력 등 우수 중견기업에 대한 포상, 올해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성장탑을 수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혁신의 장’에서는 18일 ‘중견기업 기업가정신 포럼’과 19일 ‘2020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2부 행사로 개최되는 ‘중견기업 기업가정신 포럼’에선 디지털 전환과 연대와 협력 우수 기업 사례가 발표된다.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전문가, 중견기업 CEO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소·부·장 GVC 재편과 우리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우리 중견기업의 생존 전략을 찾는다.

/이현진 기자

“다시마 비누 만들러 어촌으로 오세요”

해수부, 오징어순대 만들기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10곳 추천

해양수산부는 다시마 비누 만들기나 바지락 캐기 등 겨울 어촌에 특화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 10곳을 추천했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울산 동구 주전 마을에서는 자연산 돌미역으로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손으로 재료를 반죽하고 모양을 내면서 떡 특유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의 촉감 발달에도 좋다.

부산 기장군의 공수 마을은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은 다시마를 활용한 천연비누와 장아찌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강원도 양양군의 남애 마을에서는 오징어순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경기도 안산의 선감 마을에서는 갯벌 체험과 고동 쪼기 등 아이들에게 유익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선감 마을에는 성인들을 위한 망둥어 낚시, 포도주 만들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 화성의 제부, 충남 보령의 무창포와 서산의 중리, 경남 남해의 문항과 이어도, 거제 산달도 등의 마을도 특산물과 고유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할 때 신한카드, NH농협카드, Sh수협은행의 카드를 사용하면 숙박, 식사 등에 대해 최대 3만원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세계 박람회서 B급 홍보콘텐츠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B급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자, 대한민국이 찬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추진을 응원하는 콘텐츠라면 영상, 웹툰, 포스터, 패러디 광고, 응원 댄스, 응원가, 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회단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응모작과 함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3명(팀), 입선 5명(팀)을 선정해 총 40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응모작과 수상작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현진 기자

韓·英 원산지인증수출자 특례절차 운영

관세청, FTA 발효에 심사없이 인증

관세청은 새해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對)영국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속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를 가리킨다.

관세청은 기존 한국·유럽연합(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상으로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동일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